

“교육감 공백 상태지만 정책기조 변화 없을 것”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학생 실력 향상, 교권 바로세우는데 전력”

“현재 교육감이 공백 상태지만 기존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교육은 교육감 공백으로 혼란스런 상황이지만 교육은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혼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청 국장을 비롯한 각 기관 부서장 및 기관장 등의 순수수법을 주문하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 권한대행은 교육감과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도내 교육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생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의회 및 정치권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특별교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사진 왼쪽)이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끝으로 유 권한대행은 “전북교육정책은 중단될 없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특히 전북교육 10대 정

책 중 학생 실력을 높이고, 교권을 바로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30일 완산구 속고개로 비전타워 3층에서 전주 진로·진학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진형석·이병철·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형 진학지원 플랫폼’

전주 진로·진학센터 개소… 대입지원관 등 배치

입시 지원 체계화… 학생·학부모 입시 불안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주 진로·진학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완산구 속고개로 비전타워 3층에 동지를 틀었다.

이는 체계적인 입시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진로·진학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진로·진학센터는 전주를 비롯해 익산센터(익산), 군산센터(군산), 정읍센터(정읍·부안·고창), 남원센터(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센터(완주·진안·무주) 등 6개 곳에서 운영,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상담 및 관리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통합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각 센터에서는 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지원관과 진학지도 전문 인력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야간 및 온라인 상담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 교원 대상 진학지도 연수, 학부모 설명회, 학생 맞춤형 컨설팅 등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전주센터 개소식으로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기반 24시간 대입 상담체계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진로·진학센터가 단순한 상담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북형 진학지원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몸은 힘들었지만, 함께한 시간은 값졌다”

전주대, 하계 농촌봉사 ‘촌과 함께’ 성료

부안·고창 일대에서 진행… 봉사활동 펼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달 23~27일 4박 5일간 부안·고창 일대에서 진행한 2025학년도 하계 농촌봉사활동 ‘촌과 함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중앙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 학내 자치기구가 공동 주관했으며, 총 360명의 재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부안 5개 마을과 고창 7개 마을 등 총 12개 마을에서 농촌 일손 돕기 및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여 학생들은 각 마을의 이장님 및 주민들과 협력해 마늘, 감자, 양파, 복분자 등 주요 농작물 수확, 마을회관 및 공공시설 청소, 주변 환경 정화, 어르신 돌봄 활동 등을 펼쳤다.

일부 마을에서는 소규모 문화공연과 간식 나눔, 생활 방역 활동도 함께 진행,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업었다.

참여 학생들은 “몸은 힘들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값지고, 봉사를 통해 나 자신도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의지 총학생회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 학생들과 따뜻하게 맞아 준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과 함께 웃고 나누는 봉사활동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부설초, IB 후보학교 승인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교장 민환성)는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IB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관심학교로 등록된 지 불과 9개월 만의 성과로, IB 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전체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IB 후보학교는 IB 본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며, 향후 IB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에 전주부설초는 초등 IB 프로그램(PYP: Primary Years Programme)의 철학과 실행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교육과정 설계, 교사 전문성 개발, 학교 문화 조성 등 다방면의 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학생 중심의 수업 혁신,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직원 협업 문화 강화 등 IB 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 철학을 학교 현장에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이뤄진 성과다. /장은성 기자

‘우리 땅’ 독도 수호 의지 다짐

전북대 등 4개 대학생 144명, 울릉도·독도 방문

전북대를 비롯한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는 공동으로 ‘2025 나라사랑 독도사랑 국토탐방단’을 구성, 지난 6월



25~28일 3박 4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탐방하며 국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각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 36명씩 총 144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독도 입도와 역사 특강, 안용복기념관 견학, 태극기 파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고, 국토 수호의 의지를 다

졌다. 특히 독도에 발을 디딘 학생들은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독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매우 감격스러웠다”며 “우리 영토를 지켜낸 선조들의 헌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탐방을 기획한 전북대 조동휴 학생취업진로처장은 “미래 세대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 대학 간 공동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제3회 ‘치유숲 산책길’ 캠프

31~31일… 내일 누리집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송영임)은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분소(신선길)와 함께 제3회 치유숲 산책길 특별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31일 운영되는 이 캠프는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을 포함한 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과 사회적 배려 대상 가족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2일 학생수련원 누리집(참여마당-치유숲산책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추첨을 통해 참여 대상을 선발하며, 최근 2년 내 참여 가족은 제외된다. 참가 확정자에게는 9일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지리산의 자연 속에서 숲 체험, 신선길 탐방, 안전 교육, 명상요가, 가족 한마당, 들꽃 인문학, 천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만의 추억을 쌓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